

광주·전남 7개 시·군 대기오염물질 배출 제한

환경부 내년 4월부터 특별법 적용 전국으로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92곳 규제... 노후경유차·화목보일러도

내년부터 광주·전남 7개 지역에선 대기오염 물질 배출이 제한된다. 다량배출 사업장은 할당량을 지켜야 하고, 노후경유차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특히 주민간 갈등을 유발하고, 생활 속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화목보일러 등도 규제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2020년 4월부터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수도권 대상외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배출

허용치 총량을 제한하던 제도가 내년 4월부터 광주·전남 7개 등 전국 77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수도권 30개 시·군에, 중부권 25개·동남권 15개·남부권 7개 시·군 등이다. 이들 지역은 자동차 및 생활주변 배출가스도 억제해야 한다.

남부권 대기관리권역에 속하는 광주·전남에선 광주시와 여수·순천·광양·목포·나주·영암 등 7개 지자체가 포함됐다. 특별법에 따라 광주·전남내 대기오염물질 총량 관리제의 제재를 받게 될 사업장은 총 92곳에 이른다.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란 관리 대상 오염물질(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 등)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도별 배출허

용총량을 할당하고, 할당량 이내로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권 거래를 통해 할당량을 준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간 질소산화물 배출량 4t, 황산화물 4t, 먼지 0.2t을 초과배출 하는 사업장은 총량관리제 제재를 받는다. 단 먼지의 경우 공동연소시설(발전, 보일러, 소각,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만 대상으로 한다.

총량관리 사업장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을 할당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추가 배출시에는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총량관리제를 처음 시행하는 점을 감안해 시행 첫 해인 2020년에는 사업장의 과거 5년 평균 배출량을 배출총량으로 할당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배출허용 총량을 준수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초과부과금 기준 금액의 5배를 부과하고, 다음 해 대기오염물질 할당량에 대해서도 초과한 양에 비례해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2024년까지 오염물질 총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안팎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 내에서 운행중인 차량 중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미달하는 노후 경유차의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해야 한다.

또 권역 내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100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 공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노후 건설기계의 사용을 제한된다.

한편 대기관리권역법 하위법령 제정안 및 주요제도 남부권역 설명회는 오는 13일 광주시 서구 영산강유역환경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넠뛰기하는 유학생들 7일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중앙도서관 앞 광장에서 열린 '국제 교류의 날' 행사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전통의상을 입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전남대는 유학생들의 교류와 재학생, 교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7:00 달뜨기 15:39
해질 17:32 달집 02:37

입동(立冬)

아침 기온 큰 폭으로 내려가 낮과 밤의 기온차 크겠다.

광주	맑음	4/15	보성	맑음	1/15
목포	맑음	6/14	순천	맑음	4/18
여수	맑음	7/17	영광	맑음	2/14
나주	맑음	1/15	진도	맑음	6/15
완도	맑음	7/16	전주	맑음	2/15
구례	맑음	1/16	군산	맑음	3/14
강진	맑음	4/15	남원	맑음	0/15
해남	맑음	3/15	흑산도	맑음	10/14
장성	맑음	2/15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0.5~2.0	북서~북	0.5~1.5
남부 앞바다	북서~북	1.0~3.0	북서~북	1.0~2.0
남해 앞바다	북서~북	0.5~1.0	북서~북	0.5~1.0
남해 서부 앞바다(동)	북서~북	1.0~2.0	북서~북	1.0~2.0
남해 서부 앞바다(서)	북서~북	1.5~2.5	북서~북	1.0~2.0

◇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4:54 17:03
여수		
		00:38 12:36

◇ 주간 날씨

9(토)	10(일)	11(월)	12(화)	13(수)	14(목)	15(금)
☀	☁	☁	☀	☁	☁	☁
5/18	6/17	11/17	8/17	7/17	4/10	3/12

목포대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 선정

3년간 11억원 지원 받아

목포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현장맞춤형 이공계 인재양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총 1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 중심 다학제연구팀의 연구과제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현안 및 기술문제 해결 역량을 가진 이공계 인재를 양성하는 사

업이다. 목포대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3개 중점분야(친환경수송시스템, 미래형신소재, 스마트·그린에너지) 지정 주제와 자유 주제의 34개 실전문제연구팀을 선정·지원하고, 산업체와 우선채용 협약 등 학생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최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택배·대리기사·골프장 캐디도 고용보험”

인권위, 국회의장에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에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조속히 심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회사 사업주에게 사실상 종속돼 있지만, 근로자로는 분류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상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들은 최근 서비스산업 발달과 정보기술 보급, 노동시장 유연화 등으로 종사자수와 직종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상당수가 민법상 ‘도급계약’ 또는 ‘구두위

탁’ 방식으로 일하기 때문에 항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인권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산재보험 대상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앞으로 전 직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확대해야 한다”며 “보험료도 일반 임금노동자처럼 사업주와 분담하고, 급여 내용은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부터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이날 전국 5274개교 초·중·고 선수 6만3211명을 대상으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도 발표했다.

실문조사에 참여한 5만7557명(91.1%)의 응답자 중 2212명(3.8%)이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9035명(15.7%)은 언어폭력, 8440명(14.7%)은 신체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

다. 고등학생 선수는 이미 학생이 아닌 선수로 인식되는 상황으로, 성폭력도 동성 섹스나 또래가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게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학생 선수들이 각종 폭력에 노출돼 있지만 공적인 피해구제 시스템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으며, 장시간 과도한 훈련으로 학습권과 건강권은 물론 휴식권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체계 정교화 ▲상시 합숙 훈련 및 합숙소 폐지 ▲과잉훈련 예방 조치 마련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 ▲학생선수 인권실태 전수조사 정례화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광주시 동구, 개별주택가격 산정 주택조사

다음달 19일까지

광주시 동구가 다음달 19일까지 '2020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한다.

7일 동구에 따르면 2인 1조로 편성된 10명의 조사요원이 현장조사를 진행한다. 동구는 건축물관리대장 등 각종 공부상 변동

사항을 사전확인한 후 특성조사표와 도면 등을 참고해 주택의 용도·구조·연령·밀집·중축 등과 토지의 분할·합병, 형상, 방위, 도로접면 등 토지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동구 내 단독주택 8519호, 다가구주택 728호, 주상복합주택 3680호 등 총 1만2204호다.

동구는 내년 2월까지 가격산정과 검증

절차를 거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가격열람과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후 내년 4월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게 된다.

동구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지방세인 재산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 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주택 특성조사가 정확히 실시될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시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광주시 북구, 9일 '도서관서 온 종일 책임' 행사

수공예품 판매 플라마켓도 열려

광주시 북구는 “오는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11회 도서관서 온(讀)한 하루 - 도서관, 서(書)로 물들다' 행사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책을 매개로 지역 주민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온종일 책 읽기' 프로그램에서는 '1일 1독'을 목표로 아이부터 어른까지 연령대로 구성된 5개 팀이 하루에 완독이 가능한 책을 읽고 독후활동을 수행, 수료증을 받는 행사다.

일곡도서관 1층 북카페에서는 수공예품과 재사용이 가능한 물품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플라마켓도 열린다.

'거리의 철학자'로 불리는 강신주 작가

가 '아무나 감당하기 힘든 말, 사랑'을 주제로 강연하고, '서울밴드'가 함께 하는 북콘서트도 마련됐다.

북구 관계자는 “책 읽기 좋은 계절인 가을에 지역 주민이 책과 강연, 음악 등이 어우러진 행사에 참여해 서로 소통하고 독서활동의 재미를 느낄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참여 등 자세한 사항은 북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북구청 도서관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019
12.1
~
12.31**

무등파크 호텔&리조트

송구영신 패키지 특별프로모션

기업행사 · 세미나 · 대관 · 가족행사 · 돌잔치 · 송년회 · 신년회

01 송구패키지 (100명) ~~5,997,400원~~ → **5,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02 영신패키지 (200명) ~~10,861,600원~~ → **10,000,000원**

스탠다드룸 1박 + 연회 뷔페(주류, 음료 포함) + 고급 케이크 + 아이스카빙 + 밴드 연주

최소 20명에서 최대 500명까지 한 번에 진행가능!

예약문의 062-226-0011